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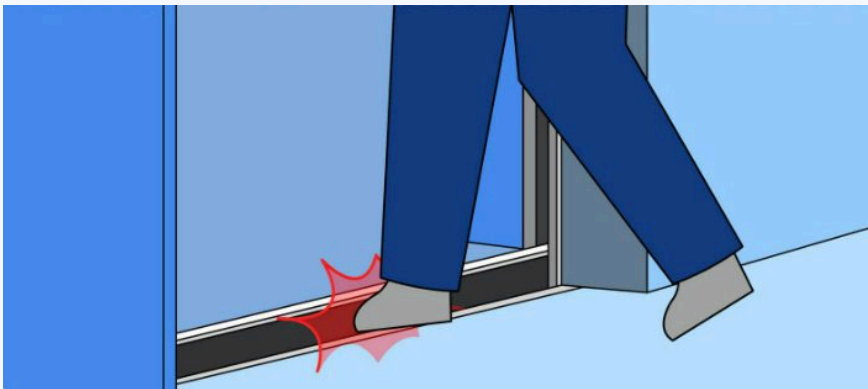
ELEVATOR SAFETY

우리가 알아야 할 엘리베이터 안전상식

3가지



01 타기 전 '1초', 발밑 수평을 확인하세요!



⚠ 엘리베이터 탑승 시 단차로 인한 발 끼임 사고

단차(段差) 현상이란?

엘리베이터가 층 바닥보다 높거나 낮게 멈추는 현상입니다. 유압식 승강기나 노후 장비에서 자주 발생하며, 불과 수cm의 차이도 발이 걸리면 낙상 사고로 이어집니다.

“안전을 위해 1초만 여유를 가져주세요”

엘리베이터 문이 열릴 때 잠시 발 밑을 확인하는 습관이 큰 사고를 예방합니다. 스마트폰 화면보다는 안전한 발걸음에 집중해 주세요. 구성원 모두의 안전과 미소를 지키는 시작입니다.

02 갇혀도 질식하지 않으니 '이것'만 기억하세요!



엘리베이터는 밀폐 공간이 아니므로 공기는 계속 순환됩니다.



탈출하려고 문을 강제로 열면 추락 위험! 가장 안전한 곳은 '승강기 내부'입니다.



비상호출 버튼을 누르고, 비상벨 옆 '승강기 고유번호 (7자리)'를 알려주세요.



갇혔을 때 올바른 대처법

- 1 당황하지 말고 침착하게 대기
- 2 비상벨을 눌러 관리자에게 신고
- 3 비상벨 옆 승강기 **고유번호(7자리)** 확인 후 119 신고
- 4 절대 억지로 문을 열거나 탈출 시도 금지

💡 고유번호는 항상 비상벨 주변 스티커에서 확인 가능!

03 불이 났을 때 엘리베이터가 '굴뚝'이 됩니다!

불이 났을 때 엘리베이터는 '거대한 굴뚝'이 됩니다

- ✔ 통로를 타고 유독가스가 순식간에 올라와 질식 위험이 큼니다.
- ✔ 언제든지 전원이 차단되어 갇힐 수 있는 움직이는 감옥이 될 수도 있습니다.
- ✔ 화재 시에는 무조건 계단을 이용하세요!



화재 시 핵심 수칙

❌ 절대 엘리베이터 금지

화재 시 정전으로 엘리베이터가 멈출 수 있고, 유독한 연기가 빠르게 가득 찰 수 있습니다.

🚶 반드시 비상계단 이용

비상구 표시를 따라 계단으로 대피하세요. 연기는 위로 올라가므로 자세를 낮추며 이동합니다.

🔔 이미 탑승 중이라면?

모든 층 버튼을 누르고 가장 먼저 열리는 층에서 즉시 내려 계단으로 대피합니다.

화재 시 엘리베이터 탑승 = 생명 위험! 무조건 계단!